

# 청년 머물고 아이 양육 좋은 곳...영광군 인구 늘리기 '올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자료는 30년 내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간 농촌 자치단체는 산업·생활기반이 붕괴돼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광군이 지난해 1월 발빠르게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에서다.

군은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워 ▲청년발전 5개년 계획 ▲투자유치 기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공을 들이면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광의 인구늘리기는 청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일하고 즐기고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지역을 살리고 도시에 활력을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제 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한 데 이어 청년 일자리 부서를 신설,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준성 군수는 "인구는 자치단체의 위상을 결정짓는 기준이자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향유 여건 등이 좋아져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때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군민, 기업 등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균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빠른 조직 정비=영광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인구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왔다. 1월 인구정책TF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3월에는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추진시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때 29개 부서에서 60여건의 다양한 시책이 보고됐다.

군은 이후에도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두 차례 더 가졌고 인구증가 시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1월에는 청년 분야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청년일자리담당과 출산정책담당을 신설했고 아동·여성·청소년 업무담당의 기능조정과 인력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인구정책 TF는 인구정책담당으로 전환,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적 정책 추진=영광군은 우선, 기관·사회단체·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영광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신학기에는 학교를 돌며 관내 전일교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전입도 독려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읍·면에 전일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구정책 세부지원 사

## 인구정책 전담부서 다양한 시책 추진

**일자리 창출·귀농·출산 장려 적극 지원**  
**청년 발전 5개년 계획 5000억원 투입**  
**향우회 등 중심 영광 주소 갖기 운동**  
**미혼남녀 만남·어르신 사회 참여 지원**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박차**



영광군은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 영광 종합병원을 방문, 첫 출산한 산모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김준성 영광군수.

향과 거주이전 절차를 안내해왔다. 영광군 자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경우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당직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했고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인사실적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군이 나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인구늘리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군은 출산 지원책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양육비 지원액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렸고 둘째 아이는 400만원, 셋째 1200만원, 넷째부터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10%)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정

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사회초년생 주거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인터넷 청춘카페 운영, 인구정책 교육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군은 청년 발길이 끊어질 않는 영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같은 의중이 반영됐다.

군은 올 1월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로드맵'을 설정한 뒤 지난달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5년간 ▲청년고용 확대 ▲청년능력 개발 ▲청년참여 활성화 ▲청년복지 증진 등 4개 분야로 나눠 81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관련 사업비로 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청년공간 조성, 청년학교, 청년도전 프로젝트,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100억원의 청년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은 더 나아가 성별·지역별·직업별 실태조사를 거쳐 영광 지역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관심=영광군의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5만5149명으로, 65세 이상이 1만4918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우고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일자리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주, 구인구직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영광군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분야별로 나누고 채용공고, 구인 수요 등을 분석해 일자리를 구하는 군민들과 매치시켜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까지 추진하며 인구 늘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 2015년 주최한 미혼남녀 만남행사 장면.



영광군 직원들이 지난 3월 영광읍내를 돌며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청년정책발굴보고회를 갖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광군 제공>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 캠프장소: 마닐라 일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당 선생님  
• 맞춤형 멘토맨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http://blog.daum.net/e.powe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